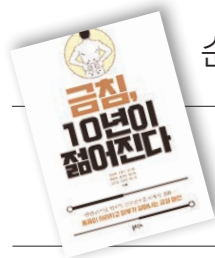


수술없이 금침으로 하는 치료법 소개



순도 99.99% 금, 만성질환·치매 등에 효능

'금침, 10년이 젊어진다'

김동원 외 8인 저, 1만6800원, 솔트앤씨드.

금(金)침으로 뼈 건강부터 미용까지 챙길 수 있는 침술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전문서적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침은 고대로부터 근골을 견고하게 하고 관절을 이롭게 하며 독기를 제거하기 위해 동서양을 통틀어 활용돼 왔다. 서양에서도 금이 류머티스 관절염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1980년부터 간 해독과 관절염에 널리 쓰였다. 다른 금속과 달리 금은 감염이나 면역학적 반응도 적게 일으킨다. '금침'이 선호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금침이란, 순도 99.99%의 금으로 만들어진 가는 금실을 인체 내에 자입해 지속적인 침 자극을 유도한다. 한의학에서는 퇴행성 관절염, 안구건조증, 치매 등 만성 질환과 안면 리프팅에서 효과를 발휘해 왔다. 2010년대 들어서 머리카락보다 가는 0.07mm 전후의 금실이 등장했으며 식약처 의료기기 3등급 허가를 받아 안전성도 더 높아졌다.

금침은 피부 절개가 필요없는 비수술 치료이며 항염, 진통, 순환, 재생 등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서양의학에서는

주로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등에서 본격적으로 금침 시술이 시행되고 있으며, 수의학 영역에서도 골관절염 등의 치료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 책은 한의학 관점에서 금침의 임상 사례와 그 원리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1장 금침으로 10년을 되돌리다 △2장 침으로 좋아지면 금침으로 더 좋아진다 △3장 근육이 튼튼하면 늙지 않는다 △4장 혈액이 가는 곳에 영양이 간다 △5장 내 몸을 되살리는 건강 습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표 저자인 김동원 근생활의원 원장은 대한금침학회 회장, 한의학 박사, 카이로프랙틱 의사, 요가운동처방사로 활동 중이다. 수많은 임상 케이스를 통해 금침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으며, 세미나와 논문을 통해 널리 알리고 있다.

조창인 온드림한의원 원장,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한방중류제형학회 부회장, 대한한방소아과학회 정회원 및 전 아이에너지한의원네트워크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정혜원 기자

가슴 속 흐르는 강을 통한 삶의 고찰



'한모금'이라는 주제로 시의 언어에 생기를 불어넣어

'오늘 밤도 지쳐 잠들 당신을 위해'

이채원 저, 8000원, 펠스트북.

공동 수필집 '불계 물든 명은 낙엽이 되어 떨어진다'로 진정성 있는 삶의 궤적을 모색했던 작가 이채원의 목소리가 좀 더 견고해졌다. 시집 '오늘 밤도 지쳐 잠들 당신을 위해'를 내고 독자의 마음에 풀무질을 시작한 것이다.

이번 신간에서 작가는 "사람의 가슴속엔 누구나 한줄기 강이 흐른다. 이 강은 마음을 적시고 삶을 바꾼다. 시는 그런 강의 한 모금"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시의 언어가 갖는 신성성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서울에서 나고 자라 바쁜 도심에서 방송과 학업생활을 병행한 작가는 보고는

낯 모든 것을 손끝에 담아 세상에 뿔어내고 싶었다. 활자의 형태를 지닌 모든 게 좋았다. 단편소설에서 시작해 사회심리학을 다룬다 시의 영역에 도전했다.

책에 담긴 27편의 시는 각각 짧지만, 저자의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다 기른 눈물이 녹아 있다. 시의 언어에 동화된 작가의 마음은 각별하다. 그는 "삶은 겨울철 나무처럼 다가올 새로운 초록을 기다리며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지쳐 간다"고 했다.

책에는 하나하나의 시어마다 작가가 고민한 우리 공동체에 대한 아픔과 따스한 마음이 녹아들어 있다.

정혜원 기자

평화·번영의 염원 앵글에 담다

'경기 포도 페스티벌 2022' 내달 4일 연천서 개막 작가와의 만남 예정... 'DMZ 사진 캠프' 등 주목

경기도가 품고 있는 생생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공유하고자 경기문화재단이 개최한 '경기 포도 페스티벌 2022'가 내달 4일 연천아트하우스에서 개막한다.

22일 경기문화재단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지난달 서울에서 열렸던 '라이브 인 경기 Live in GyeongGi' 사진집 출판 기념 전시를 더욱 확대·보강해 DMZ와 인접한 연천에서 경기도의 '평화'와 '번영' '공존'에 주목한다.

경기하여가의 '경북과 엮어놓니고(경

기의 광경-이것이야말로 어떻습니까)'의 질문에 대한 10인 사진작가(강재구·강재욱·강진주·김신욱·노순택·박종우·박형근·성남훈·이재용·이한구)의 대답을 만날 수 있다.

'DMZ PEACE PHOTO-SHOW' 연천 전시는 오랜 시간 방치됐던 폐벽돌 공장이라는 연천아트하우스의 장소성을 감안해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된 사진 작품들로 구성되며, 6월4일부터 7월10일까지 진행된다.

개막 행사로는 참여 작가가 직접 작품을 소개하고 관람객의 질문에 답하는 '작가와의 만남'이 예정돼 있어 사진에 관심이 많은 도민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6월5일에는 참여 작가들과 함께 전시장을 출발해 한탄강과 재인폭포까지 걸으며 경기도 DMZ의 아름다움을 경험해 볼 수 있는 'DMZ 사진 캠프'가 진행될 예정이다. 23일부터 지지씨서비스를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경기포도페스티벌 순회전시는 연천 전시 종료 이후 오는 8월 수원외 경기상상캠퍼스 전시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정혜원 기자 hjyang@skyedaily.com



경기문화재단은 내달 4일 연천아트하우스에서 '경기 포도 페스티벌 2022'가 개막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문화재단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남겨진 사람들... 연극 '내일 바다에'

대학로, 6월25~7월10일

유니플렉스 3관 개막

트라이아웃 공연 이후

재정비하여 다시 공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 '내일 바다에'가 공연한다.

6월25일부터 7월10일까지 서울 종로구 대학로 유니플렉스 3관에서 공연하는 이 작품은 지난해 트라이아웃 공연을 거쳐 재정비를 마친 후 관객들을 정식으로 만난다.

작품은 조상의 영혼을 맞아들여 대접하고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일본의 명절 오봉을 배경으로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폐허가 된 고향으로 돌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다.

떠난 사람과 남겨진 사람 사이에 놓인 작은 간극을 배경으로 재난 이후의 삶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7년 뒤인 2018년, 철도원인 세미는 2011년 사고 당시 소중한 사람을 잃고 나미에 역에서 근무하고 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는 그의 마지막



연극 '내일 바다에' 출연진.

하이메이

소원은 원래 근무하던 후타바 역이 재개장되면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날만을 기다리며 삶을 이어간다.

후타바 역의 철도원 세미 역에는 뮤지컬 '아이위시', '드라큘라'의 김도현, 연극 '비클레스', '어나더 컨트리'의 윤지현이 함께한다. 김도현과 윤지현은 2021년 트라이아웃 공연에 이어 다시 한 번 공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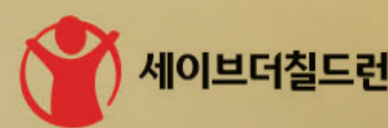
연극 '내일 바다에' 공연 포스터. 하이메이

참여한다. 세미의 여자친구 나츠 역에는 드라마 '홈타운', '미치지 않고서야'의 김예은과 뮤지컬 '또! 오해영', '그리스의 양서운이 새롭게 합류한다.

후타바 지역의 주민 하세가와 역에는 '헬로 더 헬 : 오델로'와 지난 '내일 바다에' 트라이아웃 공연에 참여했던 전흥선과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일본판 공연, 뮤지컬 '마이 버킷 리스트' 대만 공연을 비롯해 미국 드라마 '파친코'에 참여한 김남호가 출연을 확정지었다.

정혜원 기자 hjyang@skyedaily.com

엄마 아빠, 내 백일잔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나의 백일이예요.

엄마 아빠는 벌써부터 매일 밤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기념할지 의논하고 있어요.

나를 낳느라 고생을 많이 한 엄마와 매일 밤잠 설치며 재워주는 아빠 아프지 않고 잘 자라는 기특한 나를 위해 아주 특별한 기념일을 만들 거래요.

다른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특별한 나의 백일, 여러분도 함께 축하해 주실 거죠?

좋은 날, 행복을 더하는 기부 좋아서하는기념일



'좋아서하는기념일'은 백일, 첫돌, 결혼, 일상 속 다짐 등 다양한 기념일을 기부로 기억하는 후원입니다. 후원해주시는 분들에게는 후원 감사증서와 특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좋아서하는기념일 을 검색해보세요!

참여문의 02-6900-4400 홈페이지 www.sc.or.kr/like

